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 총력

전주시, 긴급방역대응팀 24시간 가동 등 비상근무체계 강화

전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적은 가능성까지 염두한 광범위한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등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갖추고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정부의 '경계' 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긴급방역대응팀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 보건소는 5,550여 명의 상담을 진행하고 중국 등 유행국가를 방문했거나 발열 등 의심증세가 있는 환자 51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보건소는 또 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일부터 덕진구청 옆 덕진진료실을 선별진료소로 설치하고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에는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대자인병원까지 총 5군데의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손소독제와 분무소독제 3600여 개와 마스크 4만 여개를 배부하고 포스터와 안내문 20만 여장을 배포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도 집중했다.

기존보다 2대 증차된 3대의 방역소독 차량을 활용해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화상카메라 10대를 긴급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구청, 전주역,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자가 격리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주시 직원 1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소는 대학의 개강시기에 맞춰 중국에서 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을 대비해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대

학과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대학과 함께 무증상 입국 학생이 지속사가 아닌 원룸 등 자을 격리 시 지속적인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대학교 개강을 앞둔 현재 코로나19 방역대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비상방역과 대응근무를 통해 감염증 소멸 시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는 기침을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국 정책보좌관, 전주형 도시재생 배워

민선7기 제1차 보좌진 아카데미 전주서 개최·혁신현장 소개 등 진행

전국의 정책보좌관들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1번지 전주시의 서노송예술촌 등 문화·예술을 입혀 재생한 공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목민관클럽 회원으로 가입된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 정책보좌진 등 43명은 '2020년 민선7기 제1차 보좌진 아카데미'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은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희망제작소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연구와 소통의 장을 모토로 지역

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 교류하기 위해 지난 2010년 9월에 만든 연구모임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역사를 기반으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혁신현장이 소개됐으며 김승수 전주시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보좌진들은 방치된 폐공장을 예술놀이터로 바꾼 '팔복예술공장'과 직선도로를 안전한 곡선도로로 만들고 생태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킨 전주역 앞 '첫마중길',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변신중인 '서노송예술촌', 예술의 힘과 주민의 참여로 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서하동 예술마을' 등 전주시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네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전을열 전주시 기획예산과장은 "전주는 한옥마을 뿐 아니라 지역의 뿌리 깊은 문화와 시민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예술을 바탕으로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하는 등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람·생태·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와 승부하고 있는 전주시의 성공 사례가 다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 먹거리 강사 양성교육’ 개강식 개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달 24일까지 10개 강좌 진행

전주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안전한 먹거리를 널리 알릴 전문강사가 양성된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0일 전주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전주푸드 먹거리 강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먹거리 강사 양성교육은 다음달 24일까지 총 10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기후와 에너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식품첨가물의 유해성 등 식품 안전 분야와 농업, 환경, 건강 분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은 오는 4월 진행되는 심화교육과 최종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전주푸드 먹거리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향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을 추진해 건강한 음식과 식생활로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안전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홍보로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도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개강식에서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0일 전주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전주푸드 먹거리 강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센터장의 '2025전주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 참가자 송세현 씨는 "전문적 학습을 통해 건강한 우리 밥상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서 먹거리강사 교육을 신청하게 됐다"며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농업과 먹거리를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잘 먹는다는 일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 농업과 지구환경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며 "전주시와 시민이 함께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꽃 선물 릴레이 운동’ 동참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 및 축소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돕기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꽃 선물 릴레이 운동'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용식 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따라 마스크 등 생필품의 매점매석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불법행위가 많다"며 "관련된 사건에는 엄정 대처하는 한편, 보건당국의 협조요청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졸업과 입학 등 꽃다발을 안기며, 서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화훼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열어붙는 소비심

리를 하루빨리 회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송하진 지사의 지명을 받아 '꽃 선물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조 청장은 전북경찰 페이스북에 화훼농가 응원 영상을 등록, 다음 참여자로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과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에게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지역경제 살리기 착한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금암2동 지역발전협의회, 영세상인 응원·플러트연주가 재능기부 등 펼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소비 촉진에 나섰다.

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19가 겹치면서 경제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동체 회복 등 상생을 통한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 착한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암2동 지역발전협의회는 20일 금암동 사대부고 네거리에서 자생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응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왕성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유능한 플러트연주가 유수연 씨가 플러트연주를 통한 재능기부로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로하고 응원했다.

이와 동시에 박주선 통장은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대목을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꽃집을 살리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장미꽃을 구입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아 상인과 시민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은 금암2동 주민들의 자



금암2동 지역발전협의회는 20일 금암동 사대부고 네거리에서 자생단체 회원 20여명과 함께 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응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금암2동은 앞으로도 주 1회 직원들의 우리동네 맛집 찾기와 월 1회 자생단체 장보기 및 식당 이용하기, 꽃과 화병이 있는 민원실 조성, 착한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동참을 위해 자생단체와 함께 기업과 공공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 유관기관까지 확대

오늘 전북은행 본점 로비서 16개 화훼농가 구성 연합회 참여해 이동장터 개최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졸업식 등 성수기를 맞고도 수요급감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청 각 부서와 유관기관을 매칭, 유관기관별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21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에서 꽃사주기 운동에 동참한다. 이날 전북은행 본점 로비에서는 (주)로즈피아와 지역 내 16개 화훼농가로 구성된 연합회가 참여해 직원과 대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장미와 국화, 프리지아 등의 꽃다발을 판매하는 이동장터를 열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꽃사주기 이동장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하고 홍보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위촉된 꽃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이동장터를 한옥마을, 전주 시청, 완산구청, 덕진구청에서 진행해왔다.

시는 그간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5~16일에는 전주역(코레일전주시철사업소)에서 이동장터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전주원에농협 등과 협의를 진행해 농협에서는 직접 장미, 프리지아 등을 생산하는 화훼농가 조합원을 통해 5000송이를 일괄 구매하기도 했다.

시는 그간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

동장터에서 판매된 꽃은 100만 송이에 달해 화훼농가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행사를 더욱 홍보해 많은 유관기관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꽃사주기 운동을 통해 일년 중 큰 대목에 피해를 입은 지역 화훼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등학교 여선수 성폭행 의혹 운동부 코치, 현재 조사중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선수가 운동부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내 모 고등학교 운동선수인 A양이 운동부 코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해당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는 접수됐다. 수

사를 위해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다른 학생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과, 완산방범순찰대 현장 간담회 개최

20일 전북경찰청 경비교통과(총경 박정환)에 따르면 이날 완산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중대장, 지휘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경비교통과장이 직접 의정·상설중대 등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를 통한 폭력있는 전북 경비경찰 조성과 상반기 정기 인사시 경비부대 지휘위원 교체에 따른 워크숍 취지로 마련됐다.

더불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향후 시행될 집중교육 대비 자체 교육방향 공유 등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됐다.

박정환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늦은 밤에 목욕히 교통·방범 근무에 임해 전북 치안을 위해 힘써주는 대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린다"며 "의경부대 통폐합 등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지 않도록 중대장 및

각 소대 지휘위원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 경비교통과장은 "특히, 최근 국내의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발병 관련해 대원들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청사 환경정리에 대한 유의 사항과 대원들 영의활동 기간 중, 부대복귀 시 발열 여부 필수 확인 등 예방 활동의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석훈 기자